형통 대신 소통의 현재진행형

(창39:1~23)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본문 중심으로 <형통 대신 소통의 현재진행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형통 대신 소통의 현재진행형'
우리는 대부분 형통을 바라는데, 형통을 바라지 말고 소통을 현재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성골프대회(LPGA)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미국인 골퍼가 있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한두 번 접해 보셨을 거예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미셸 위라는 여자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LPGA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으로 25세인데 2005년 아주 어린 나이에 LPGA투어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긴 침체기를 지내다가 2013년부터 서서히 이전의 페이스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부터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퍼팅입니다.
골프공을 코스에서 치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 홀이 있는 그린 위로 올린 다음에 공을 홀 속에 집어넣는 것을 퍼팅이라고 합니다. 이 퍼팅을 잘못하면 앞에서 아무리 잘 쳤어도 소용이 없는데, 2013년부터 미셸 위가 이상한 형태로 퍼팅을 합니다. 몸이 ㄱ자가 되는 거예요.

허리를 ㄱ자가 되도록 굽혀서 퍼팅을 하는데 골프채의 막대가 가슴에 닿을 정도로 숙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왜 그렇게 퍼팅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신 지애 선수가 있고 일본에 미야자토 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퍼팅에 아주 능합니다. 이 두 선수에게서 힌트를 받았는데 신 지애 선수의 키가 156cm이고, 미야자토 아이가 157.5cm인데 미셸 위의 키는 190cm예요.
신 지애 선수나 미야자토 아이 선수의 눈높이에 자기의 눈높이를 옮겨 놓느라고 몸을 그렇게 90도로 꺾어서 ㄱ자 폼으로 퍼팅을 하는데, 2013년부터 서서히 달아오르다가 2014년에는 LPGA US오픈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로는 골프 코스가 다 다르고 그린의 상태가 달라도 항상 그 한 가지 폼을 가지고 퍼팅을 합니다. 그 폼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오랫동안 익숙한 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ㄱ자 폼을 유지하면서 퍼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떤 상황이 가정에, 직장에, 내가 속한 사회단체에서 주어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돈, 인간관계, 건강, 일, 모든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왔던 모든 해결을 위한 몸부림을 그만두고, 미셸 위가 어떤 그린의 상태에서든지 ㄱ자 폼으로 퍼팅을 하듯이 한 가지 폼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때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형통을 바랬는데, 내 마음에서 형통을 바라는 한 형통한 삶이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논리상 내 마음이 형통을 바라고 있는 한 형통은 주어지지 않고,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에서 형통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바라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바래야 합니다.
미셸 위가 어떤 골프장이든, 누구와 1, 2위를 다투어서 함께 그린 위에 올라갔든, 그린의 상태가 어떠하든, 날씨와 기후가 어떠하든 항상 ㄱ자 폼으로 퍼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면한 상황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노예생활이 나오는데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 두 번의 불통과 두 번의 형통이 있습니다.
두 번의 불통 중의 하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인데,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불통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노예로 팔렸으나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합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못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원한을 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한 번의 불통인데,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의 불통과 두 번의 형통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요셉의 인생을 직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불통과 두 번의 형통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이 굉장히 짙은 의도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나옵니다.
함께 하심과 형통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나오는데 똑같이 분리시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서도 함께 하심과 형통함을 분리시키는 강한 의도적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함몰되어서 같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구분을 하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하심과 형통함이 별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언제나 형통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통을 전제로 하고 형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소통이 언제나 형통 밑에 깔려버리는데, 오늘 함께하심과 형통을 분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켜 놓습니다.

왜 소통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입니까?
내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소통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 소통의 현재진행'
지금 현재 소통되고 있는 중이라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소통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것과 형통을 구분 짓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미셸 위의 퍼팅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선민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오셨다고 함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거기에 바른 응답이 있어야 해요.
두 사람이 몸은 같이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열중하며 보고 있으면 소통이 없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내용대로 일을 한다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소통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하에서 볼 때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17살 밖에 안 된 어린애입니다. 제가 17살 때를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어린 청소년이 이억 만리타향에서 노예생활을 시작합니다. 히브리 집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도대체 이 충격을 어떻게 이겨나갔나 싶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요셉은 한 가지만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열두 형제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살 때에도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나고,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요셉의 삶에 대해서 묘사한 핵심적인 내용이 꿈을 꾸는 것이었어요. 성경이 그 외의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형들에게 팔려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집에서 생활할 때에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짐작하게 하는 것은 꿈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왜 꿈 이야기만 할까요?
요셉의 매일 매일의 삶에서 제일 큰 관심사가 하나님과 소통을 현재 진행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일을 하게 됩니다.
미셸 위가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골프장에서 퍼팅을 하다가 북부의 예일대학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LPGA에 참가해서 퍼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린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고 샌디

에고는 남부라서 지중해성 기후로 서늘하고 맑고 아주 기후가 좋거든요. 그런데 북부는 구름이 많고 안 좋습니다. 그린의 상태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그 ㄱ자 퍼팅 자세를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 때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환경이나, 요셉이 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과의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실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버지의 집에서나, 노예 생활을 할 때에나, 감옥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도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있지 않고, 그린에서 ㄱ자의 퍼팅 자세를 유지하는 미셸 위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감옥에 살건, 노예로 살건, 아버지 집에서 살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관심이 아니었고 놓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힌트를 주는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합니다.
눈으로 슬슬 눈길을 준 것이죠. 이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소통의 첫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발달과정에서도 사회성의 첫 단계가 소통을 하려고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인데, 그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엄마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또의 외동딸이 백정의 아들과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다.”
눈이 맞은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이 눈을 맞추려고 계속 눈길을 주고 있는데도 안 맞춘 겁니다. 눈이 맞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을 철저한 윤리관이나 투철한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윤리관이나 율법적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와 눈길이 맞지 않았던 것이지 윤리의식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이해할 때에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길을 주는 자가 살인할리도 없고, 부모를 거역할리도 없고, 간음할리도 없고, 거짓말할리도 없고, 도둑질할리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행위로서 율법의 내용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해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민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에 벧엘에서 처음 만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서 도망갈 때에 암흑과 같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때에 하나님이 처음 다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야곱의 눈길이 이 땅 위에서의 축복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길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고 있었으면 당연히 형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눈이 맞으면 시선이 맞는 것이고 눈길을 준다는 말처럼 눈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은 시선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생기면 왕래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이 맞으면서 눈길이 생기고, 내 마음이 눈길을 따라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음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마음에 복사시켜 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복사되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와 관계없고 미치지 못한 영역들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복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결과로 형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곱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에 눈길을 주고 성공에 눈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형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형통을 바라는 마음이 형통을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소통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눈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눈길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의 모든 눈길을 빼앗아가는 대상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치 야곱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이 제로가 되었을 때, 아무것

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야를 다 가려야 되는데, 요셉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시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쳐다보겠습니까?
시선이 죽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 대한 시선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꾑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돈이 꾀며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없는 것을 보고 걱정되지 않느냐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뭘 사야 되지 않겠냐고 꾑니다. 자녀가 꾀고 명품이 꾑니다. 나와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서 돈, 명품, 자녀가 내게 계속해서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밝히 봐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시선이 맞습니까?
이 지구평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당신의 독생자 사건 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선민에게 날마다 지금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내게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온 십자가에 올라가신 독생자께 다 가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가 달리신 십자가에 시선을 두시고, 땅에 있는 나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선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치되면서 거기에서 눈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아버지의 뜻대로 복사해서 일을 하고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삶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의 의미가 앞서서 선취되면서 적용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서 애굽 왕궁의 영화를 버렸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전인 선민들에게서도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관심은 노예생활을 하든, 감옥으로 들어가서 죄수생활을 하든, 항상 미셸 위가 ㄱ자 퍼팅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의 현재진행형만 유지한 것입니다.
형통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불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떨어집니다.
이 두 불통은 어떤 불통입니까?
지름길 형통이었습니다. 무슨 수로 히브리 족속의 자식이 그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두 번의 불통이 생겼는데, 이 두 번의 불통에 의해서 형통은 지름길을 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복사되고 시선을 맞춤으로 내 생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라는 A4용지에 이미 인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글자 위에 또 다른 글자가 쓰이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각이 죽고, 시선이 죽고, 하나님께로 모든 생각과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현재진행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셸 위가 어떤 골프장과 날씨와 상대를 만나서도 ㄱ자 퍼팅 폼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이 일어나고 불통이 주어질 때에도 그 불통은 지름길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통을 바랄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직 한 가지 소통의 현재진행형만을 우리 삶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불통조차도 형통의 지름길로 드러나는 현실 앞에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